

가정/살림 도서 정보 분석

차상진

2025/06/09

목차

- 출판사 브랜드 신뢰도 분석
- 도서 정보로 보는 사회현상
- 2000년 이전 자녀 교육 책

출판사 브랜드 신뢰도 분석

- 가정/살림 특성상 카테고리끼리 허들이 낮은 편이다.
- 그리하여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에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는지 확인해봤다.

출판사 브랜드 신뢰도 분석

- 가정/살림 총 13개의 카테고리 중 무려 11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출판하는 출판사가 존재했다.
- 평점이 매우 높은 편

	출판사	카테고리수	평균별점	리뷰개수	카테고리
0	리스컴	11	9.266667	12	차/술/음료
1	리스컴	11	9.306250	16	요리일반
2	리스컴	11	9.398649	74	생활요리
3	리스컴	11	9.407317	41	개인요리책
4	리스컴	11	9.200000	59	상황별요리
5	리스컴	11	9.168750	48	메뉴별/나라별요리
6	리스컴	11	9.233333	24	홈베이킹/베이커리
7	리스컴	11	9.576923	13	임신/출산
8	리스컴	11	9.560000	15	육아
9	리스컴	11	9.341667	12	자녀교육
10	리스컴	11	9.457895	19	집/살림

출판사 브랜드 신뢰도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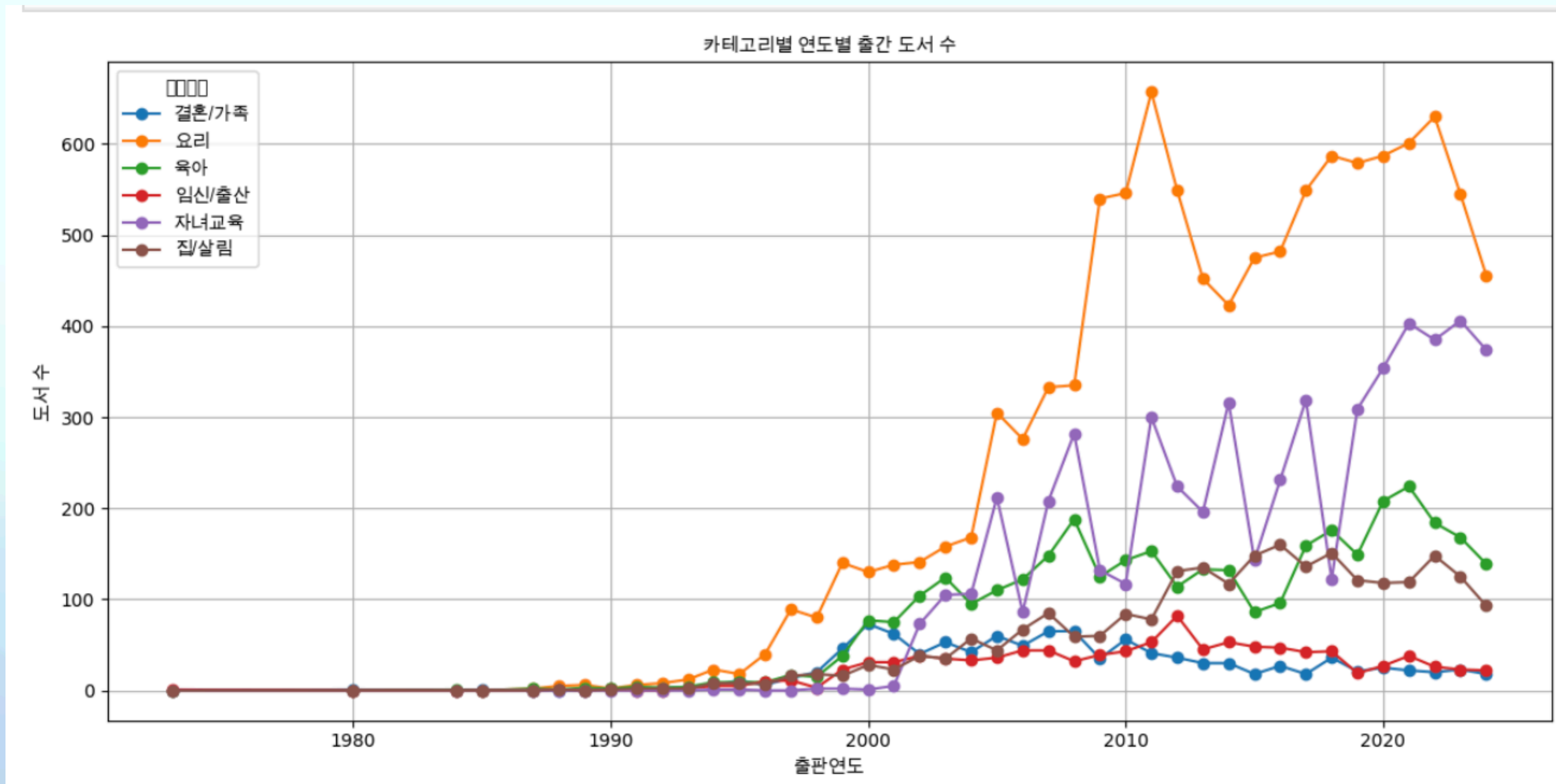
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출판하는 출판사들의 평균 별점

- 이를 통해 출판사가 운 좋게 인기있는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.
- 단순한 인기책이 아니라 꾸준한 만족을 만들어내는 제작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
- 실제로 규모가 큰 출판사면 책 한 권 출판을 위해 들이는 시간이 다르다고 한다.
- <https://brunch.co.kr/@mistyblue/106>
- 총 출판사 개수는 3501개

	출판사	평균별점
0	경향미디어	9.483405
1	경향비피	9.626501
2	그리고책	9.161116
3	그린북	9.284137
4	길벗	9.621711
5	나무수	9.319587
6	동아일보사	8.945743
7	레시피팩토리(단행)	9.682654
8	리스컴	9.356132
9	미호	9.092096
10	비타북스(VITABOOKS)	9.436739
11	삼성출판사	8.784775
12	성안당	8.978692
13	영진닷컴	8.986863
14	중앙북스(books)	9.243517
15	한스미디어	9.3021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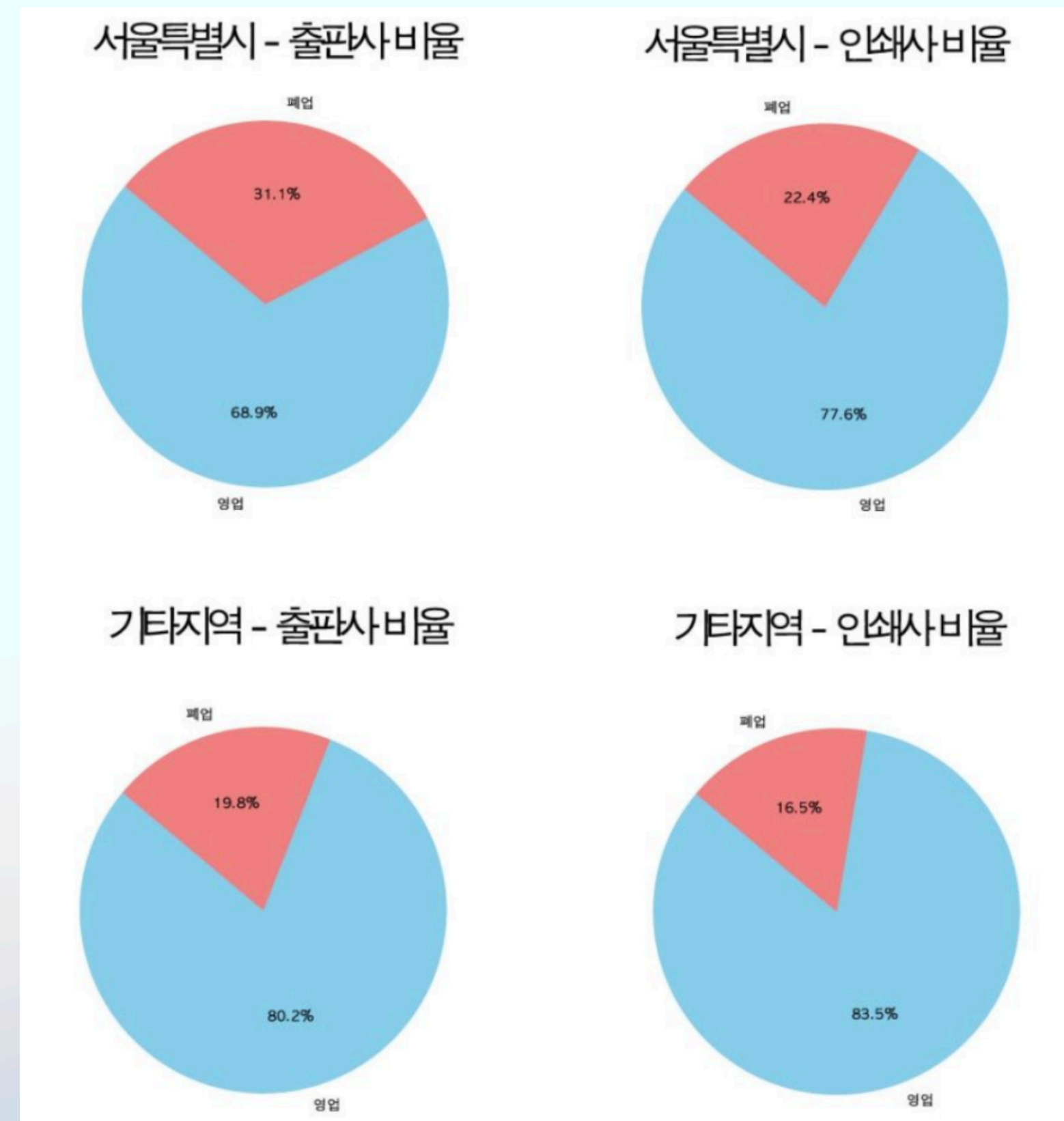
도서 정보로 보는 사회현상

1. 2022년 이후 출간 도서는 감소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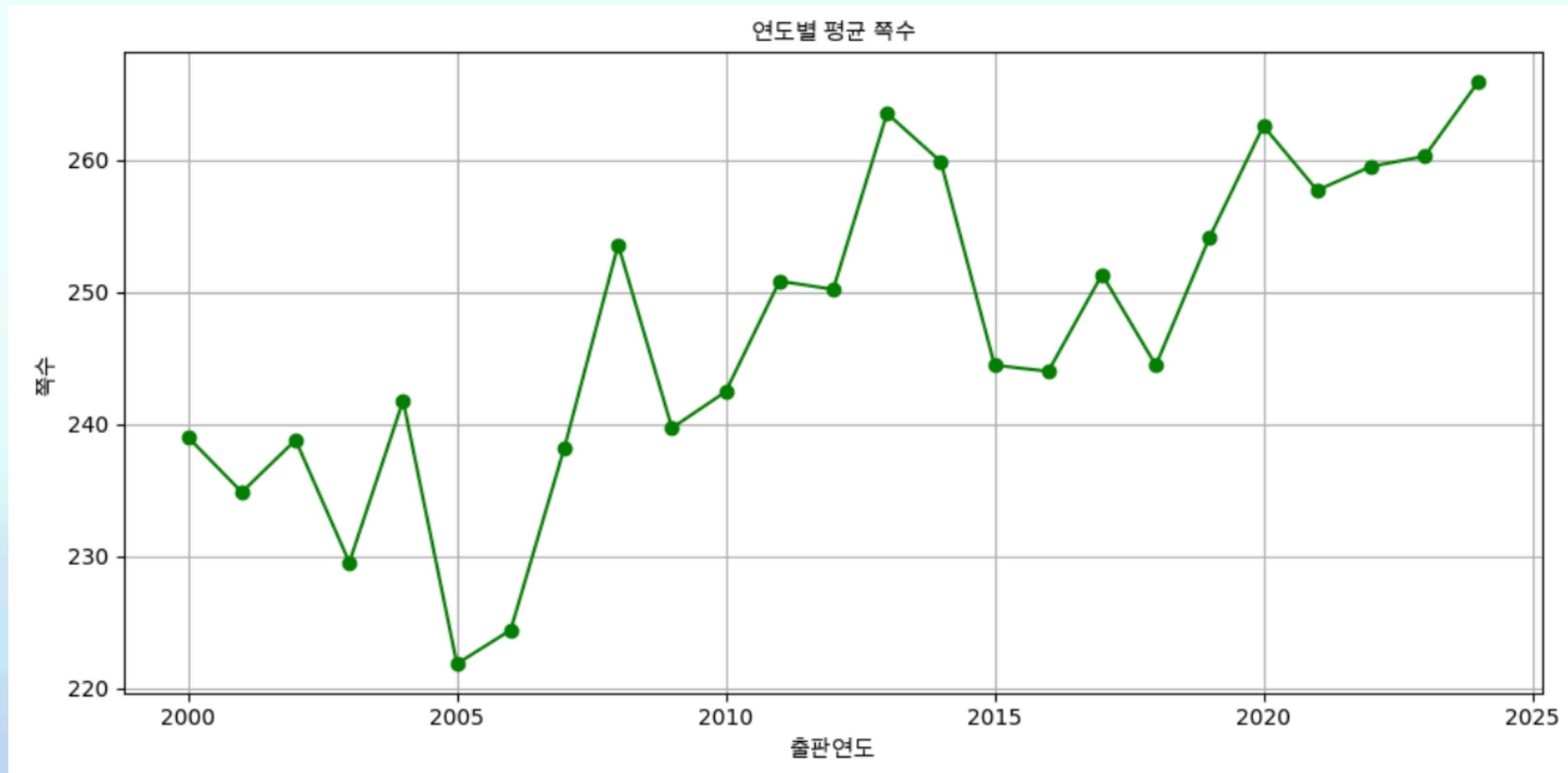
도서 정보로 보는 사회현상

- 1. 출판 시장의 위축: 디지털 콘텐츠 소비로 전환
- 2. 출판사 구조조정과 폐업 증가: 실제로 2022~2024년 한국 출판사 등록 수는 줄고 있음
- <https://www.argo9.com/archives/44463>



도서 정보로 보는 사회현상

2. 평균 쪽수의 변화



도서 정보로 보는 사회현상

평균 쪽수의 변화

- 1. 깊이 있는 책에 대한 수요 집중
 - - 디지털 콘텐츠에서 얇은 지식은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돈 주고 사는 책은 깊이 있게 설명하는 책이 되어야한다.
- 2. 저자 중심 콘텐츠 강화 -> 자전적 서술 증가
 - - 전문가 브랜딩을 위해서 한 권 안에 경험 + 해석 + 팁 + FAQ + 칼럼까지 다 넣다보니 페이지 수가 늘어남
- 3. 편집 트렌드 변화
 - - 독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편집이 넓은 여백 + 큰 글자 + 많은 사진 중심으로 변화

2000년 이전 자녀교육 책

전체 도서 수: 5661권

2000년 이전 도서 수: 6권

📖 2000년 이전 도서 제목 목록:

출판연도		제목
2726	1994.0	어머니의 피아노 교육
19	1995.0	신세대 심층분석
1492	1998.0	일기쓰기 어떻게 시작할까
3223	1998.0	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
1953	1999.0	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1
4157	1999.0	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2

2000년 이전 자녀교육 책

- 원인
- 자녀교육이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은 2000년대 이후
- → 입시경쟁, 조기교육, 창의성 교육 등 현대적 개념이 강화되며 폭발적으로 출판됨.
-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
- →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과거 책은 도태되고 재출간되지 않음.